東亞日報

月曜 休刊

本紙朝夕合十面

編輯人 發行人 印刷人 宋鎭禹 金炳奎

京城府光化門通一三九番地
發行所 株式會社 東亞日報社

電話 光化門 代表番號 一九〇〇

新聞價 一個月 一圓 / 廣告料

社說

聯盟改造運動과 伊首相

現實性이 稀薄

一

[illegible] 世界의 平和를 [illegible] 今十三年 [illegible] 約三十餘年에 [illegible] 一年 [illegible] 事件과 [illegible] 世界大戰 [illegible] 日本의 [illegible] 되게되엇다。이와같이 [illegible] 米國 [illegible]

二

昨年十二月五日 伊太利 파시스 [illegible] 國際聯盟 [illegible] 英、米、佛、日 [illegible] 大國 [illegible]

四

[illegible] 欧洲의 諸 [illegible]

[illegible] 明白하다。其他 列國의 政府、軍事上、非常時 對策 運動은 가장 [illegible] 一部의 三九、三六年의 [illegible] 非常時 [illegible] 不備하고 政府的外交 [illegible] 進展되기 [illegible] 至難하다하야 [illegible] 歐洲政局 [illegible] 英 [illegible] 伊國民의 人心을 收拾하 [illegible] 世界平和 [illegible] 今後의 進行如何가 [illegible] 바이다。

米、新貨幣政策實行의 暫定法案成文發表

루大統領敎書를 完全케하리고

上院通貨委員長言明

【華盛頓十五日發】上院銀行通貨委員會委員長 [illegible] 氏는 [illegible] 新貨幣政策實行에 關한 暫定法案 成文을 十六日午後 公表하엿다 [illegible] 今日의 [illegible] 新通貨政策 [illegible]

一、聯邦準備銀行保有金 一切은 米國政府로 옴기고 聯邦準備 [illegible]

一、新合衆國 政府가 [illegible]

一、財務長官은 [illegible]

一、財務長官은 多額의 [illegibl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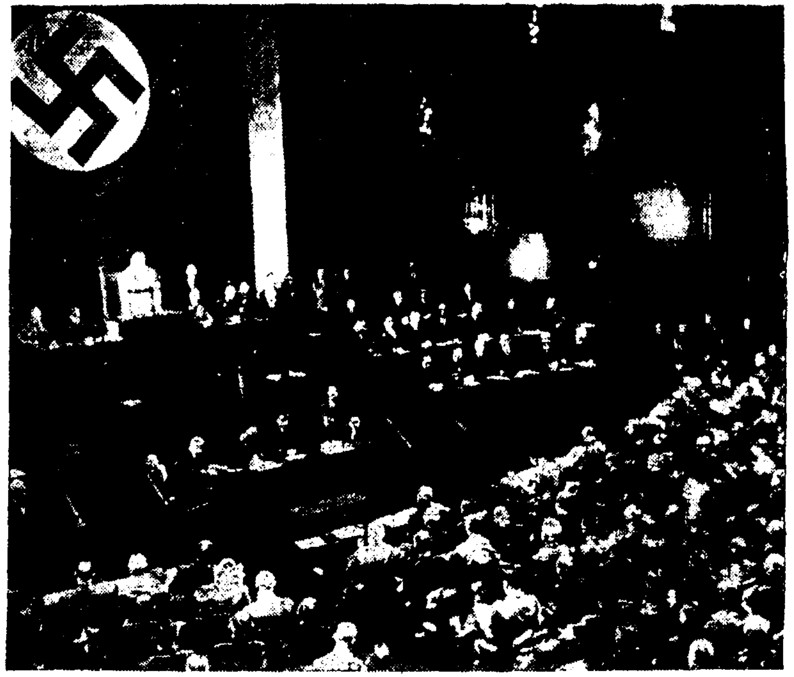
米大統領派 學生團과 衝突 十數名이 死傷

【[illegible]十五日發】[illegible] 大統領 [illegible] 學生團 [illegible] 死者 [illegible] 重傷者 十數名을 내엇다

루氏、行政命令으로 銀禁止도斷行

金價格은三四弗四五仙

【華盛頓十五日發】米國人 [illegible] 行政命令 [illegible] 金價格은 三十四弗四十五仙 [illegible]



나치스全勝議會의初開會式

【伯林發聯合】昨秋의 國際聯盟脫退를 [illegible] 帝國議會總選擧는 文字대로 나치스의 壓倒的大勝으로 [illegible] 그全勝議會의 開會式이 去十二月十二日 힌덴부르크大統領의 出席下에 [illegible] 議長으로 擧行되엇는데 寫眞은 나치스全勝議會의 開會를 宣言하는 [illegible] 議長。

更生의張氏 갈곳은어대?

南京本社特派員 發信

東北의 [illegible] 八日外遊의 [illegible] 一個月 [illegible] 張學良氏 [illegible] 一、華北으로가서 [illegible] 東北軍을 [illegible] 失地 [illegible] 二、中央航空部長에 就任하야 [illegible] 三、江西共產軍討伐司令에 就任 [illegible] 四、福建十九路軍討伐司令에 就任 [illegible] 五、江西剿匪總司令에 就任하다 [illegible] 六、西北實業에 就任케하야 [illegible] 張氏가 [illegible]

蘇聯、靑海經由 中部中國에進出?

新疆의盛世才、蘇聯援助로得勢

新疆地方에勢力扶植

米海軍玖馬에 驅逐艦 急航

【[illegible]十五日發】[illegible] 玖馬에 [illegible]

米海軍陸戰隊 福州上陸

【福州十六日發】米國東洋艦隊 [illegible] 陸戰隊 三十名이 [illegible]

尹艦隊司令官 海相訪問

【聯合東京電話】[illegible] 尹艦隊司令官 [illegible] 大角海相 [illegible]

「對米戰爭準備論」 米國各紙問題化

末次中將의所論으로人心刺戟

戰爭不可避說을引用

【紐育十五日發】末次 [illegible] 米國防備力 [illegible] 對米戰爭準備論 [illegible] 米國海軍飛行隊 [illegible]

米穀對策으로 農村匡救費希望

政友會鈴木總裁談

【聯合東京電話】鈴木政友會總裁는 [illegible] 齋藤首相 [illegible] 農村匡救 [illegible] 米穀統制法 [illegible]

大利를獲得한 鐵道와專賣局

鐵道局利益率은空前의五分

專賣局一割一分增加

[illegible] 昭和八年度 [illegible] 專賣局 [illegibl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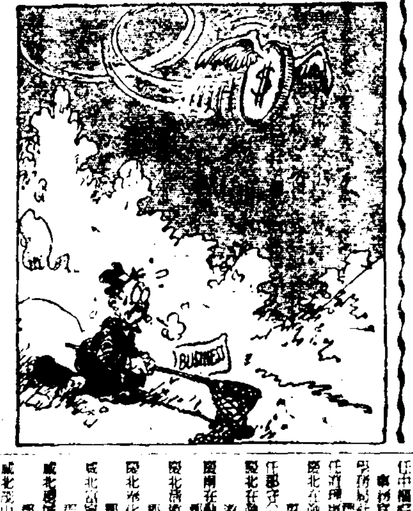
新義州에 綿布의大洪水

【新義州聯報】[illegible]

福建問題解決로 蔣、汪合作强化

南京政府의基礎强固

【上海特電】[illegible] 福建 [illegible] 蔣介石氏 [illegible] 汪兆銘 [illegible] 南京政府 [illegible]



弗에 날개가 돋히어

弗에 날개가 돋히어 [illegible] 米國民은 [illegible] 치어다보며 [illegible]

文部省辭令

【聯合東京電話】[illegible]

辭令

[illegible]

夕刊後市況

▲東京定期 [illegible]

醫學博士推奬

만병약수

만병통치 [illegible] 중화경장간•중종•소지마류•신류맥동•중화경맥동•대선울밍•종천창갑•창갑•독매
발티부로으성독매타기•시로래가•빙풍•통경신•첨기렌오•독중은수•독중염성라
다니읍잇가효록도라이첫한더잇에중종성독매나스없수릴아허•중종는하생

定價一瓶 壹圓九拾錢

故魚乙彬의病院자리에서 萬病藥水、補材藥水、補材膏、疥瘡膏、金鷄蠟의販賣營業所를開始하엿습니다 여러분이釜山오서실때는元魚乙彬病院자리에오서주시면 弊院이오니아모조록단여가심을바람니다 寫眞中의사람은 故魚乙彬의病院이잇습니다 寫眞中의사람은 에비수藥院主外事務員의一部올시다 萬病藥水와弊院製劑를注文하시는분은 釜山本町故魚乙彬跡에 비수藥院또는에비수藥院이라고하여注文하여주시요

改正上上品金鷄蠟發賣

登錄商標 魚乙杉

釜山本町 에비수藥院 振替釜山三三一四番

KODEPA

今春의土木工事에 談合被告는除外?

一審判決의適用與否로問題中

總督府는會計檢査院과折衝

조선사법부가 담합사건에 대하야 유죄의 판결을 언도한데에 대하야 총독부에서도 더 매가의 방침을 결정하얏다고 재작년에 이에 관한 공판을 발하엿는바 금회에 경성지방법원에서 유죄의 판결을 받고 현재 공소중에 잇는 대담합사건에 대하야 경기도에서 파면 어떠케 될는지 공사기관 목전에 부고 업자의 주목의 목표로 되어잇다.

즉 전기 판결에 의하면 담합사건이 절대 배경주의에서 담합사건으로 유죄의 판결을 받은자에 대하여는 장래 공사 입찰의 지명을 아니하기로 되어잇는데 그 유죄의 한계(限界)를 제一심에 붙는지 유죄종심에 붙는지가 중대한 문제로 주목되어잇다.

즉 한계의 여하에 불구하고 복죄한자는 이때에 문제외로 되어잇으나 제一심에서 유죄로 되어잇을지라도 二심 三심에서 무죄로 판결될 경우도 잇음으로 一심에서 유죄로 되어 공소중에 잇는자에 대하여도 이미 유죄의 판결을 받은이에 비처 넘지라도 전기 방침을 적용하자는 설에 대하야 사법부(司法部)와 행정부(行政部)와는 반듯이 일치하지 안코 담합배가 의 주지에 가하야 이미 一심에서 유죄로 인정되어잇다면 당자가 복죄하든지 아니하든지 우리 방침을 적용하야 지명을 정지할것으로 총독부에서 [illegible] 담합의 패마를 일소하기로한이상 [illegible] 一심에서 유죄로된다면 즉시 적용하야 상급 재판소에서 무죄로 된다면 재차 지명하도록 하자는 설도 잇어서 일방 실제문제로 금회와 같이 일본업자의 대다수를 망라할경우에는 一심판결 유효설에 따라 이것을 즉시 지명치 아니하게 된다면 금후의 공사계에 미칠 영향이 대단하므로 이점에 관하야 총독부 당국은 장래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야 신중한 태도를 취하고잇는데 금정전(今井田)총감 임(林)재무국장이 본월가에 의회(議會)에 출석하기위하야 도동하므로 이 기회에 회계검사원(會計檢査院)의 견해와의 의견을 청취한후 최후방침을 결정하리라는 모양이다.

五百圓안내면 生命이危殆

樊忠壇으로 돈가지고 오라고

埋伏警官이犯人逮捕

시내 종로서에서는 시내 인의동(仁義洞) 八十五번지 이기상(李起祥)의 집에 어떠한 협박문이 왓다는 [illegible] (櫻井町) 四정목 八十四번지 김경(金敬□)(二○)으로 판명되엇다 [illegible]

三百馬賊이 國境을窺視

밀정을보내 경계상태를조사

日滿當局嚴重警戒

【자성】 최근전하는바에 의하면 만주국 [illegible] (鴨綠江)연안에 [illegible] 왕(王)[illegible]은 부하三백명을 무대 [illegible] 성수(城□)의 강안경 [illegible] 계를 매우엄중히 하다고한다.

◇아이쓰 하-키-의 光景……昨日 市外所見

診療所患者 三萬八千餘

작년一년중 경성부지료소(京城府診療所)에서 치료를받은 환자는 조선인 三만三천九백二十三인 일본인 四천九백二十二인 외국인 [illegible] 이엇다한다.

昨年一年中의 職業紹介種別

[illegible]

日明倉庫火災

[illegible]

都市計劃委員總會

[illegible]

八名轢殺

동해도선열차가

【연합대판전화】 十六일 오전十 [illegible] 동해도선 [illegible] 열차가 [illegible]

損害는五千圓

羅津火災詳報

【나진】 지난十四일 오전二시반 나진항간의동(羅津港間依洞)의화재는 [illegible]

五、一五事件 民間側辯論

【전동경전화】 五、一五사건 [illegible]

金泉中心

探鑛者가雲集

경상북도 [illegible]

國境에酷寒

汽車도늣게延着

【무산】 [illegible]

江原道의 農村에만 負債千三百萬餘圓

每戶當平均八十七圓餘

昨年末現在의統計

【춘천】 강원도 농촌의 부채는 [illegible]

天道道日記念

[illegible]

車掌逢變

가방도일홈처

[illegible]

今日

一月十七日(水曜日)

[illegible]

兩脚과腹中에硫酸注入코 棍棒으로打殺、暗葬

犯人中엔妙齡女子도끼어

叛逆者라고宣告코處斷

赤色私刑事件眞相

【전동경전화】 [illegible]

山崎光逮捕

[illegible]

男女五名의私刑團 幹部卄名暗殺計劃

拳銃四梃까지裝備

[illegible]

兄弟가夜半에襲擊 短刀로夫婦刺傷

醉中에 言爭한것을 雪忿코저

通川署가五名을檢擧

[illegible]

痲雀文士에 罰金刑!

【전동경전화】 [illegible]

▲起訴者 罰金五十圓 [illegible]

▲不起訴者 [illegible]

電車에挾攻이 貨物車破碎

사람을 피하다가 그리되어

昨夕鍾路의交通事故

[illegible]

蘇聯軍用列車 脫線顚覆死傷

【전동경전화】 [illegible]

釜山에도旅行 案內所를設置

[illegible]

中央基靑主催·本社後援

치열佳境에들어가는 青年籠球聯盟戰

第三日엔三角·百合·OB各勝

中央基督敎靑年會主催、本社後援의 第十回籠球聯盟戰 青年部第三日은 十六日午後七時부터 [illegible] 에서 擧行하바 三角이 후피를、百合이和信을、OB가 수리를 各各이겻다。

[illegible]

三角53 후피14

[illegible]

百合46 和信17

[illegible]

OB75 수리27

[illegible]

籠球聯盟戰

青年部戰勝率表

1	百合림	3戰	3勝	0敗	1.000
1	三角림	3	3	0	1.000
2	和信	3	1	2	.333
2	OB	3	2	1	.667
3	수리	3	0	3	.000
3	후피	3	0	3	.000

早大對全奉天 氷上의成績

【聯合奉天十六日發】 [illegible]

氷上스피드에는 安東軍大勝

【電通安東十六日發】 早大軍對全安東軍의 스피드스케트 競技는 十五日 午後三時부터 鴨綠江에서 行하바 하키戰에 敗한 安東軍은 스피드戰에서는 斷然 早稻田軍을 [illegible]

第十回 全朝鮮男女氷上競技大會

一月二十一日(日曜) 午前十時 漢江에서

參加는 十九日正午까지 鍾路一丁目 朝鮮體育會나 東亞日報社運動部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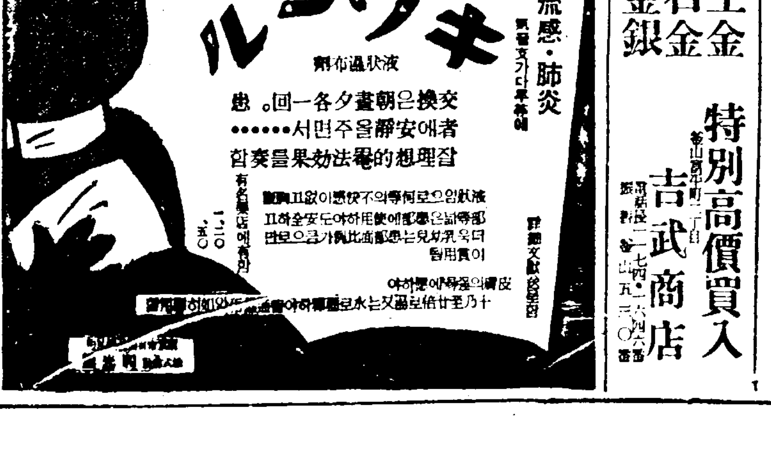
規定 【男子】五百米、千五百米、五千米、一萬米 [illegible] 【女子】 [illegible]

主催 朝鮮體育會·東亞日報社

京城 金 杉山商會
金銀地金分析賣買
合資會社 杉山商會
高價買入
杉山商會

淋病 治療와性病豫防에絶對權威
プラオンキン ケンゴール
日東藥化學研究所

土金 石金 金銀
特別高價買入
釜山府
吉武商店



キソール
流感·肺炎
液狀塗布劑
交換은朝晝夕各一回。
患者에安靜을주면서……
잘理想的인效果를奏함

東京 蒲田 日本自動車學校

株式會社 漢城銀行
本店 京城府南大門通一丁目十四番地

朝鮮最近世史

雲揚號事件과 丙子修好條約

【八】 李瑄根

◇丙子年修好條規全文◇

（江華城西門內練武堂에서 調印）

第一款 朝鮮國 自主之邦 與日本國 保有平等之權 嗣後兩國 欲表和親之實 須以彼此同等之禮相待 不可毫有侵越猜嫌 宜先將從前交情阻塞之患 諸例規一一革除 務開擴寬裕弘通之法 以期永遠相安

第二款 日本國政府 自今十五個月後 隨時派使臣到朝鮮國京城 得親接禮曹判書 商議交際事務 該使臣駐留久暫 共任時宜 朝鮮國政府 亦隨時派使臣到日本國東京 得親接外務卿 商議交際事務 該使臣駐留久暫 亦任時宜

第三款 嗣後 兩國往來公文 日本用其國文 自今十年間 別具譯漢文一本 朝鮮 用漢文

第四款 朝鮮國釜山草梁項 立有日本公館 久已爲兩國人民通商之區 今應革除從前慣例及歲遣船等事 憑準新立條款 措辦貿易事務 且朝鮮國政府 須別開第五款所載之二口 準聽日本國人民往來通商 就該地賃借地基 造營家屋 或僑寓所在人民屋宅 各隨其便

第五款 京畿 忠淸 全羅 慶尙 咸鏡五道中沿海擇便通商之港口二處 指定地名 開口之期 日本曆自明治九年二月 朝鮮曆自丙子年二月起算 共爲二十個月

第六款 嗣後日本國船隻 在朝鮮國沿海 或遭大風 或薪糧窮竭 不能達指定港口 卽得入隨處沿岸支港避險 補缺修繕船具 買求柴炭等 其在地方供給費用 必由船主賠償 凡是等事 地方官民 須特別加意 憐恤救援無不至 補給勿敢吝惜 倘兩國船隻 在洋破壞 舟人漂至處 地方人民 卽時救恤保全 禀地方官 該官護還其本國 或交付其就近駐留本國官員

第七款 朝鮮國沿海島嶼岩礁 從前無經審檢 極爲危險 準聽日本國航海者 隨時測量海岸 審其位置深淺 編製圖誌 俾兩國船客 以得避危就安

第八款 嗣後日本國政府 於朝鮮國指定各口 隨時設置管理日本國商民之官 遇有兩國交涉案件 會商所在地方長官辦理

第九款 兩國旣經通好 彼此人民 各自任意貿易 兩國官吏 毫無干預 又不得限制禁阻 倘有兩國商民 欺罔衒賣 貸借不償等事 兩國官吏 嚴拿該逋商民 令追辦債欠 但兩國政府 不能代償

第十款 日本國人民 在朝鮮國指定各口 如其犯罪交涉朝鮮國人民者 皆歸日本官審斷 如朝鮮國人民 犯罪交涉日本國人民者 均歸朝鮮官查辦 各據其國律訊斷 毫無回護袒庇 務昭公平允當

第十一款 兩國旣經通好 須另設立通商章程 以便兩國商民 且幷該議立各條款中 更應補添細目 以便遵照條件 自今不出六個月 兩國別派委員 會朝鮮國京城或江華府商議定立

第十二款 右十一款議定條約 以此日爲兩國信守遵行之始 兩國政府 不得復變革之 永遠信遵 以敦和好矣 爲此作約書二本 兩國委任大臣 各鈐印 互相交付 以昭憑信

以上의 條約은 實로 朝鮮政府가 諸外國에 對하야 最初로 締結한 條約이며 [illegible] 朝鮮國은 自主之邦으로 日本國과 平等之權을 保有한다 [illegible] 事大交隣文書에서는 볼수 업든 새事實이엇다。 [illegible] 朝鮮의 內外政治에 [illegible] 江華條約 [illegible]

新春懸賞文藝評論

佳作 朝鮮文壇을 論함

【三】 尹鼓鍾

現在

文壇의 全面的 沈滯에로의 下降에 잇어서 群少의 프로文學家의 [illegible] 形骸的으로 殘存하려고 할때 朝鮮의 [illegible] 社會的 危機에 逢着하엿다。 [illegible] 文化의 一般的 危機에 逢着하엿다。 [illegible] 「文明의 沒落」(介明言하—)그것을 意味하는듯하엿다。 文化의

危機의 旋風

은 朝鮮의 文壇도 例外로 하지 않엇다。 資本制社會의 全面的 崩壞時代에 오직 朝鮮의 文學만이 安全地帶일 理는 없엇든것이다。 [illegible] 文壇은 이 文化의 一般的 危機時代를 맞이하야 未曾有의 [illegible] 世紀末的 [illegible] 現狀을 우리에게 表示하엿든 것이다。

그것은 昔年 一九二四年以降 新興프로레文學의 動向에 依하야 文壇의 制覇權을 [illegible] 一九二八年 日本에서 三·一五、四·一六의 社會運動上의 一大旋風은 民衆에 對한 再活動의 必然的 基盤을 準備하지 않을수 없게한 結果 프로레文學의 黨에로의 完全한 歸屬을 强調하는 現象이 나타낫다。

大衆化—아지、프로文學論의 出現은 [illegible] 日本의 프로레文學의 動向에 全面的 努力을 [illegible]

朝鮮의 맑스

主義文學理論家의 口頭에 이야기 프로레文學理論이 出現하지 않을理가 없엇다。 그 結果 政治에로의 優位에 依한 藝術性의 第二義에서 프로레文學은 그 文學에로서의 [illegible] 必然的으로 한것이 잇는것이다。

現實의 朝鮮的 特殊가 理論의 朝鮮的 特殊에 그치고 理論과 內容의 日本의 直輸入的 無批判에 依存하야 프로레文學은 그 [illegible]

一般的 文化

의 危機에 當面하엿슬때 [illegible] 現實의 [illegible] 呼吸과 [illegible] 遊離한 [illegible] 一大 [illegible] 沒落 [illegible] 이 文化의 危機 [illegible] 아니할수 없다。

이 事實은 一九三〇年代를 中心으로 [illegible] 詩人과 作家에 對한 年少氣銳의 論客이 輩出하야 [illegible]

[illegible]

何等의 注目

을—他와 [illegible] 文學에 [illegible]

人生의 情熱

과 文學에 [illegible]

世界文壇

回顧와 展望

思潮、作家、作品等等

―一九三三年을 主로하야―

【六】 徐恒錫

2、獨逸

一九三三年度 獨逸文壇의 最大異變은 [illegible] 文化統制이다。 [illegible]

[illegible] 排斥하엿다고 聲明까지 하엿다。 이후러의 政權이 오래 繼續되는 限에서는 今後 眞正한 나치스作家의 出現도 期待되지 않는배 아니어니와 現下에 잇어서는 나치스文學의 第一線을 形成하고 잇는 사람들은 本來부터도 國民主義的이든者 또는 國民革命 成就後에 나치스로 轉向한者 들이다。 [illegible]

努力

[illegible]

愛國

主義의 [illegible]

遺棄된 殘滓

가 [illegible]

토마

스·만、하인리히·만、[illegible] 等의 [illegible] 外國에 亡命하거나 或은 [illegible]

갈이

나치스文學者는 아니지마는 本來부터 [illegible] 作家와 하우프트만、[illegible] 나치스에 轉向한 [illegibl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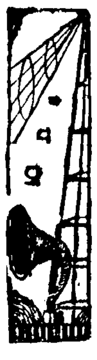
이들 諸作家의 新作品의 內容이 [illegible]

新作

의 으로는 [illegible]

運命

과 心境的 展望을 [illegible]



今日프로

水曜日 JODK

晝間部

▼午前十一時五分 氣象通報、料理法、日用品時勢、京城府物價發表

▼正午 時報、今日프로그램發表

▼午後零時五分 唱劇調 (一)春香歌 (二)沈淸이 [illegible]

▼零時四十分 [illegible]

▼一時 家庭講座 [illegible] 李 軒 求

▼四時 뉴스、職業紹介事項

夜間部

▼六時 管絃樂 [illegible]

▼六時二十五分 [illegible]

▼七時 뉴스、天氣豫報

▼七時二十分 [illegible]

▼八時 [illegible]

▼九時 [illegible]

▼九時三十分 [illegible]

第一放送

▲午前七時(東)基礎英語講座 [illegible]

明日프로

▲午前十一時五分 氣象通報、料理法、日用品時勢 ▲正午 時報、今日프로그램發表 ▲午後零時五分 [illegible] ▲九時 [illegible] 氣象通報、[illegible]

佳作小說

新春懸賞文藝

外套

【一】

方然南

一

[illegible]

二

H는 이편지를 받기전 [illegible] K에게 갓섯다。K는 [illegible]

「어서드리지 왜 가만이잇수?」

[illegible]

「저 오늘 웬사람이 외투하나를 [illegible]」

[illegible]

「그거에갈 무슨돈으로 상[illegible]」

「그거 H가 어떤사람이 [illegible] 보앗다。 새로산지오래되지않은 꽤 얌전한것이엇다。

K는 [illegible]

天界의驚異 (下)

이달卅一日에는 地球가달을먹고

二月에는달이太陽을

오는 一月十四日의 觀測에는 一方東京大文臺에서는 四年前 八月에 北米에서 皆旣日蝕觀測에 出張하야 大成功을 한 [illegible] 技師들이 今番에는 가지못하고 東京에서 볼수잇는 「部分日蝕」의 觀測을 하기로하엿다。 朝鮮 日本에서 볼수잇는 「部分日蝕」의 時間을 보면 다음과 갓다。

部分蝕時間表

【時間은全部午前】

地方別	始蝕時間	蝕甚	回復
東京	8●30	9●28	10●29
大府	9●01	9●50	10●40
札幌	8●52	9●43	10●36
京都	8●25	9●20	10●18
金澤	8●30	9●24	10●21
長崎	8●13	9●06	10●02
京城	8●24	9●10	9●59
臺北	6●45	7●40	8●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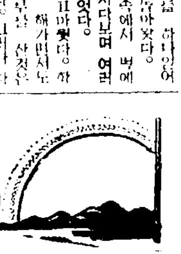
日本이나 朝鮮에서 볼수잇는것은 大槪三割 [illegible] 太陽의 直徑의 三割가량까지를 月이 侵蝕하는것이다。 그때문에 [illegible] 東天에는 [illegible] 太陽의 神秘한 모양이나타날것이다。

다음으로는 本年第二回의 月蝕인데 그것은 本年七月二十六日 午後七時五十分頃 東天에 솟아오르기 始作한 그는 黃色을 한 滿月이 벌서 [illegible] 九時十九分頃에는 [illegible] 月蝕이 생긴다。 그것은 우리朝鮮에서도 [illegible] 觀測하는것이 좋을것이다。

그러나 第二回의 日蝕은 「金環蝕」으로 實로 壯觀한것이나 좀아까운것은 이곳에서는 볼수가없는것이다 그것은 [illegible] 太平洋의 西東部其他에서 볼수잇을뿐이다。

最後로 「엥케彗星」은 지금부터 百四十八年前 一七八六年에 最初로 나타난것인데 그뒤 오늘까지 三十八回 나타난 週期的 彗星이다 今年九月十六日에는 太陽에다 가장가깝게 接近하는고로 그때 現象을 期待할수잇으나 [illegible] 光度가 너무微弱하야 肉眼으로는 보이지않어서 天文學者에게만 [illegible]

우리에게 [illegible] 一月三十一日의 月蝕과 二月十四日의 日蝕과 七月廿六의 月蝕이 가장 興味잇게 期待할수가잇을뿐이다。



무지개

(108)

張赫宙 作

李象範 畵

어둠 (五)

숙히는 무어라고 위로할지몰라 [illegible] 해영이의 [illegible]

「어머니 병환은 어때?」

숙히가 물으니、해영이는 수심가득한 얼굴로、

「이리 올라 오세요。」

하고、숙히를 유심히 나려다보앗다。

숙히는 병원 현관으로 들어가서 층계를 올라갓다。

「애、영화가 호부가 못되니? 그러게 꾸며노니 아주 씨씨해 보이는구나。」

숙히는 혜영이의 위 간호부옷을 바라보며、

「어머니 좀 나으시냐?」

하고、물엇다。

「이리 앉어서요。」

해영이는 의자를 가르키며、

「이젠 엉엉 잘많이어요。 오늘 내일하고 기다리죠。 그래서 친척와 보시랴이엇어 몸가는 해봣서요。 그그렴 전까지도 아프다고 하기운조차 없다봐요。 도라가신듯 이 까라져 계시죵。 아까 나려가 보앗는디、잠이 드신것같아요。」

기운없이、어머니의 병세를 이야기 하엿다。

「……」

[illegible]

「꼿 나올가。」

「금새요。 법에는 二년 이상이라나요。 一년이라나요。」

「그럼 수이 나오겟군。」

「알수 잇나요。「십팔」이상으로 임쥐지、않읍지。」

숙히는 요새같이 머리가 어지러운 때는 없엇든것같이 생각하엿다。

[illegible]

「정완수 여기 아니왓든? 원장은 아뵈는데。」

「예배당에 갓죠。 장로니까」

「정완수 아왓더냐。」

「정완수라니、저、주세끼 모양으로 생긴이 말이죠。」

「주세끼! 하하하。 옳아。 좋아 주세끼 올지。 웃입술에 착부링 수염 맹근……」

숙히는 혜영이를 따라 웃엇다。 잠시 그들은 웃음으로 인해 서 기분이 밝어진것 같앗다。

그러나 조금후에는 다시 우울해 지엇다。

숙히는 혜영이에게 오수연의 이야기를 하엿다。 그는 오늘은 가 어코 정완수를 만나 [illegible] 갈하고 예배당으로 가려고 나왓다。

新年號

新東亞

新家庭

全部賣切

京城光化門通 新東亞社

草案檢討
改正民刑法
庶子入家와 私生子名稱廢止
【三】
金正實

第一 親族制度【二】

庶子入家

[illegible]

庶子關係

[illegible]

私生子名稱廢止

[illegible]

一層優對의 意味로 私生

[illegible]

繼父母의 繼

[illegible]

園藝漫談
園藝事業과 迷信의 獎勵 (二)
寶川 桂勳典

[illegible]

米國 經濟復興策의
將來와 그 難關
【二】
韓昇寅

【11】國家產業復興法

[illegible]

【12】其他

[illegible]

咸南唯一의 永興明紬
年產四千五百反

咸南製絲機業傳習所

[illegible]

園藝講話
冬季의 蔬菜園藝 (三)
平澤 安忠洙

[illegible]

茄子

	播床	發芽日數	播種	植付	收穫期
茄子	二六	七	一月下旬	三月下旬	六月上旬
蕃茄	二三	六	一、下	二、下	六、中旬
冬瓜	二七	八	二、下	三、中	六、下旬
胡瓜	二三	四	二、下	三、上	五、下旬
甜瓜	二三	五	二、上	三、中	六、中旬

[illegible]

鯖油價
二圓三十五錢

法律顧問
詐欺結婚이 成立

[illegible]

產業俱樂部

生地黃의 價格과 販賣地의 商店

[illegible]

北向反斜地에 適當한 果樹는

[illegible]

第一劇場 (電話光一七五五番)

一月十六日부터 每日二回

殺人光線 7

孔雀船 12

[illegible]

朝鮮劇場 (電話本局二二八一)

아파트의 女子 全七卷

潛伏 全七卷

新婚애기事件 全九卷

農林種苗便覽
昭和九年春時種苗型錄御申越次第無代進呈
東京市淀橋區柏木
日本種苗合資會社

大田土曜會 (發起)
謹賀新年
東洋拓殖會社大田支店
朝鮮殖產銀行大田支店
漢城銀行大田支店
郡是製絲會社大田工場
朝鮮興業會社大田管理所
大田電氣會社
日本海運會社大田支店
朝鮮運送會社大田支店
忠南金融組合聯合會
朝鮮金融組合
大田金融組合
懷德金融組合

孝谷釀造場主 殷熙尹

古老面事務所 職員一同

恭儉酒造場

鄭寅材木商會 主 鄭寅詰

馬山府元町
馬山洋服店
李元煥
電話二七八

桃花劇場

스ー키ー 全九卷

지킬博士와 하이드

優美館

落下傘 全八卷

討伐隊 全七卷

尖端戀의 冒險 全六卷

馬山製鹽新聞組合

李鎭模

安炅日

金山貝車商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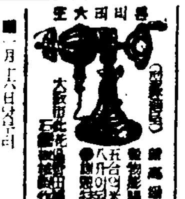
金○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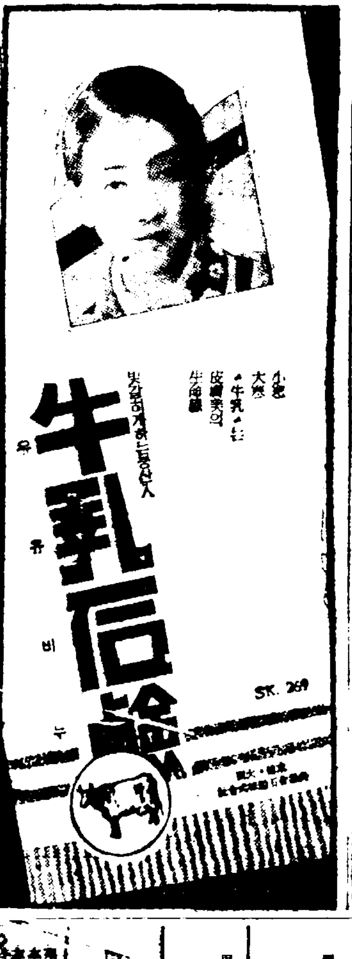
長壽醫院 鄭東燮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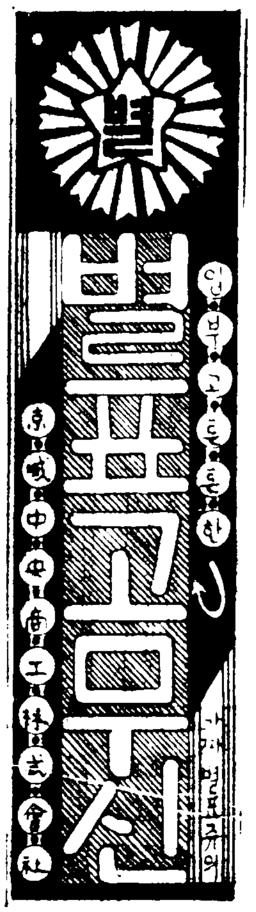
盧鉉佾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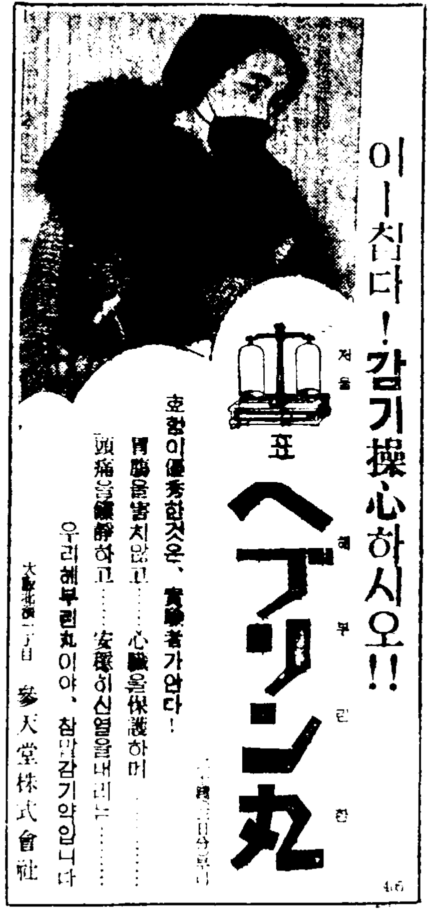
姜相文

金潤秦






별표
별표고무신
京城中央商工株式會社


이―칩다! 감기操心하시오!!
ヘブリン丸
호감이優秀한것은, 實驗者가안다!
胃腸을害치않고…心臟을保護하며
頭痛을鎭靜하고…安眠이신열을내리는
우리헤부린丸이야, 참말감기약입니다
大阪北濱二丁目 參天堂株式會社

純植物性의權威
メヌマポマード

鰆魚漁期도已盡

漁業者에大打擊

◇年産額百五十萬圓의것이

數千漁民의生路漠然

【통영】 경남 통영(統營)지방은 남조선의 유일한 어항으로서 조선수산계 十분지一의 산액이 잇고 다른 一도의 총생산을 능가하는 지방인바 지방주민들은 직접으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잇다. 지해마다 중요한 삼치(鰆魚)어업 대부분은 조선인의 경영으로 일년에 백五十만원의 산액이 잇는데 작년겨울 삼치 어업기에 일기가 너무도 온화하야 삼치가 전혀 몰려오지 아니하야 삼치 어업三백여척 대부분이 실패를 당하고 삼치잡이기는 이미 지나가고 수천명을 산다는 어업자들은 푸른 바다를 바라보고 통곡하는 비참한 현상은 유사이래 처음이라 하며 앞으로 닥쳐오는 봄에 살아갈 방도가 막연하다고 한다.

報恩酒類消費高

【보은】 충북 보은(報恩)지방에 작년 一년간 주류소비고를 조사하면 약주(藥酒)가 六천八백八十석에 대하야 금액이 十一만八천四백四十원이며 약주(藥酒)가 二백四十五석에 금액이 一만二천二백二十五원으로 합계에 六천八백二十五석 금액 十三만六백六十五원이라는바 이것을 보은군 전호수 一만二천九백六十六호 인구 七만九十三인에 할당하여본다면 一호당 五두三승에 一인당 九승七합에 해당하며 금액으로는 一호당 十一원 三十전 一인당 一원八十六전이라고 한다.

食糧既盡한火田民

生路찾어北朝鮮에

어디를가면환영을받을가?

이미三分一이移居

【고원】 삼림간수의 외목과 무서운 산림법을 피하며 속여가면서 산간벽지로 찾어들어 생계를 화전에 의뢰하고잇는 고원(高原)의 화전민들은 전멸적으로 파국을 세계경제적 우기와함께 三四년동안 계속흉년을 만나 불경이재금(不景而凶)으로 살길을 바리고 유리의 길을 더듬게 되엇다. 고원화전민은 금년겨울에 들어서도 상당히 많이 유리하고 잇어 벌서 유리하자도 불소한 모양이고 장차 이길을 밟을자 또한 적지 않다고 한다.

산도면 하죽전(山台面下竹田里)같은곳도 그동리 사람의 태반이 현재 속속 떠나가고 잇는 도중에 잇어 북조선으로 유리하러 속장하는 호수도 十여호에 달하고잇으며 명춘일기가 온화하게되면 또한 三十여호의 유리를 보게되리라 한다. 이곳의 전호수는 八十호내에 안되는데 명년가면 五할이상이 줄어드리라고 한다. 이것은 한복경한 지대이거니와 고원면산면은 어디나 이런 현상을 가지지않는 동리가 많지 않다는바 이러케 대량적으로 산출되는 유리군의 구제책은 실로 일답하기 끔이 없다고 한다.

分鑛權移動으로

住民에打擊

주민들은 무어실직한세음

元山에陳情員派遣

【진흥】 함남 영흥군 진평면 한동리(鎭平面閑東里)에 잇는 송전광산(松田鑛山)은 약 十여년전부터 개광하여 이래 계속하여오는바 채광은 지원주민에 분광을 주어오든 여섯동안 五년지 일자리에서 수특으로 하엿으며 나아지 四백명 지원주민들의 분광으로 되어 왓는데 광해 광업소에서는 아모런 이유도 없이 지난 十一월중순경 정영길(鄭永吉)외 수명에게 분광권을 허락하엿는데 해광사업을 상대(相對)로 그남겨주엇던 하여오던 주민 五백여명의 생활상 폐를 그로써 일시 젖시상에 빠지게되엇다고 한다. 해광산과 十여년이래 일업을 가지고 잇는 지원주민들은 一부 그의생한 길을 잃게 되어 주민대표 박종[illegible]씨외 四명을 뽑아 원산에 해광업의 감독관청인 원산광업소(元山鑛業所)에 진정차로 출발하엿다고 한다.

三道住民連署

市場移轉陳情

【송정】 전남 나주군 삼도면(羅州郡三道面)도리 시장(…)을 확장하라고 일반 주민들은 명백히 발동하는 동시 동시장을 중심으로하야 이번에 경찰관주재소(警察官駐在所)를 이전하여고 시정서까지 제출하엿다는데 동면 발전상으로나 모든 점으로 보아서도 이전하는것이 가장 적절하다고 한다. 삼도면 발전에 대하야 오연근(吳然根)씨는 다음과같이 말하엿다.

우리 삼도본양(三道本良)양면은 한적한 시대이며 동시 이전 한 시장도 없어 유감천만이든중 다행히 시장은 이만치 확장되엇으나 관공서 시설이 부족함으로 이번 기회에 이전하라고 운동중이나 당국에서도 발전상으로 본다면 이에 응하여줄줄 믿습니다.

公普期成活動

【진흥】 함남 영흥군 의기공립보통학교(豐陽公普校)기성회에서는 학교비 증수에 대하야 성위원 전부는 활동을 미필케하기 위하야 지난 十일 오후三시부터 동면사무소에서 기성위원 타합회를 개최하고 그중 五명의 위원으로써 학교비 증수에 대한 활동대를 조직하엿다는바 十一일부터 매원 작자는 각기 책임구역을 순회하며 적극적 활동을 개시할터이라고 한다.

自殺? 誤死?

疑問의죽엄

항해중승객一명행방불명

統營釜山間突發事

【통영】 지난 十六일 오후八시에 부산을 떠나 통영으로 오든 정기선 부산환(釜山丸)이 항해중 승객 하나이 행방이 불명되엇음을 「뽀이」가 발견하고 당황하야 아모리 수색하엿으나 발견치 아니하엿다는바 그는 수원통영사 시청공사 기수 군사여경(郡司如慶(…))으로 소지품은 외투 양복 구두 등수두 개가 잇는 품이며 부산을 떠난후 약 한시간만까지는 객실에서 빠이가 가져온 차도 마시고 또 우이스키도 한병이나 넘어마시고 하다가 「스리빠—」신고 나간후로는 어떠 하다 스리빠는 변소앞에 놓여잇고 사람이 없어진것이나 후 통영항에 전기 기선이 도착되어 들어 잇섯으나 자살이나 아닌가하여 변소에서 떨어진것인지도 모르나 아니가하고 부하 통영서에서는 그 원인을 조사중이라고 한다.

◇黃海氷上大會 [illegible]五千米에[illegible]全景

一生을勤勞로모은財産

養子가全部蕩盡

다만 얼마라도 분재해다라고

燕岐警察에老婆哀訴

【조치원】 지난十二일에 연기경찰서 조치원주재소(燕岐警察署鳥致院駐在所)에 六十이나되어보이는 노파가 나타나서 토지를 팔어가지고 도망갈려는 양아들에게 생활비나 가하 벌어달라고 애원하는 정상은 눈물없이는 볼수없엇는 사실이엇다. 그 애원하는 사실을 들은바 그 노파는 연기군 남면 종촌리(燕岐郡南面宗村里)에 원적을 두고 유지대(嘉鼓大(…))로서 十六세에 구하진으로 시집가 살하고 방아공을 찧어서 생활을 하다가 한푼두푼 모은것이 거액이되어 부시중에 빼여서의 토조를 받게까지 되엇는데 슬하에 자녀가 하나 없어 가시니 하나도 남지아니하게 되자 남편조차 신화병으로 사별한후 림경재(林敬喆)의 아우 임칠(林七(…))을 양자로 입적시키어 동거하든바 임칠이가 주색에 침혹하야 가산을 탕진하고 재산 토지를 분배하고 모두 탕진하여 장래가 곤궁한처지에 빠지게 된것을 사시에 대하야 사화한 결과 양자에게 토지를 분배하든 노파는 살아가다만 얼마라도 분재하여 달라고 호소하엿다 한다.

全北煙草

收納所火災

損害一萬五千餘圓

【전주】 지난十五일 오전 열시경 전주 전매지국 관하 전북 관촌 엽연초 수납소(館村葉煙草收納所)에서 발화하야 순식간에 연초 六천四백여관과 건물 三동을 소실하엿는데 손해액이 一만五천여원에 달하엿다는데 이 화재 원인은 방금 조사중이라 한다.

街上에手榴彈

警備隊拾得

도문시 신시가에 흘럿든것

當局은出處를嚴探

【도문】 지난六일 오후 二시경 도문시 경비대원 중촌성삼(中村省三)은 당지 신시가 대로상에서 귀갑형 수류탄(龜甲型手榴彈) 一개를 습득하야 즉시 헌병분견대(憲兵分遣隊)에 제출하엿으며 동 헌병대에서는 당지 경찰서에 협력하야 지대가 지대이고 물정이 소연한 시국이니만큼 각방면으로 그출처에 대한 의론이 분분하고 범인 엄탐에 극력활동중이라고 한다.

報恩肉類消費高

【보은】 보은(報恩)읍내 도수장(屠獸場)에서 작년一년간 육류(肉類)도살 수입고를 보면 황우(黃牛)가 四백四十두요 도야지(豚)가 四백三十二두로 소보다 도야지 도살수가 많다고 한다. 이것을 금액으로 환산하여 본다면 소값이 一만九천五백七十九원八十전에 도야지값이 三천二백八十一원二十전으로 합계 二만二천八백六十一원이라는데 이곳 육류소비고를 보은면(報恩面)경비에 비교하여본다면 二년간경비에 해당하다고 한다.

清州變死事件

四個年만에判決

【청주】 작년五월十九일오전二시경 청주읍 본정 一정목에서 부부싸움끝에 발생한 [illegible] 양인석(梁仁錫)의 처 노씨(盧氏(…))의 변사사건은 당시 보도한바와같이 청주서의 활동으로 전기 양인석을 유력한 혐의자로 잡고 취조한후 공주지방법원에 넘기어 예심에 회부되엇든바 금번 예심종결을 마치자 동법원에서는 공판에 붙이어 징역 四개년의 판결을 언도하엿다는데 피고는 이에 불복하고 경성 복심법원에 공소중이라고 한다.

加藤精米所女工

二百名一齊盟罷

주모三명을검거하는것보고

데모惹起하자全部檢束

【군산전화】 군산(群山)가등정미소(加藤精米所)에서는 여공들의 十二시간 임금이 들파 三十전으로 인하하야 어려번 이직공들은 정미소 당국자에게 임금인상을 요구하엿다 그러나 차일피일 오늘까지 연기하야오는바 十六일 아침 十一시二十분 동 여공 二백이명중 김시월 一十二명외 전부는 파업을 단행하엿다. 당시 경찰서로부터 동 파업 이광 三명을 검거하자 파업 여공 전부도 동정의 데모를 단행하다가 즉시 전부가 동경찰서 연무장에 수용되엇다고 한다.

鐵路近傍에서

嬰兒屍體發見

汽車乘客이不義兒投棄?

高原에疑問의事實

【고원】 강보의 피뭉이를 철로 근방에 내버려 주게한(?) 의문의 사실이 고원(高原)에 생겻다. 지난 十三일 동군 산상면 도내리(上山面島內里)부근 철로선로 엽에 영아시체가 잇으므로 이를 발견한 전탄주재소(前灘駐在所)에서는 즉시 본서에 급보하는 일방 지난 十四일 공의를 출장시켜 검시까지하엿다는바 영아는 출생한지 三개월가량되며 철로엽에 유기한것과 어린애 부부에 상처가 잇는것으로 보아 기차승객중의 소행인듯 싶으다고하며 시체에 솜을 싸은것으로보아 생아를 내버려 동사케한것인지도 알수없다고 한다. 이런 모성애를 몰각한 범행은 첫째 풍속의 관계로 생긴 사생아이거나 그러치않으면 생활난등인데 시체에 걸친 의복등으로 보아 부자같이는 않다는바 방금 경찰은 범인수사에 열한 활동중이라고 한다.

利川歲暮特賣

本社支局後援

【이천】 이천 동상사(東商社) 이정상회(利井商會) 광흥상점(廣興商店) 동양상회(東洋商會) 공신상회(共信商會) 영신상회(永信商會) 동아자전거상회(東亞自轉車商會) 동일주조장(東一酒造場) 이용수(李龍壽) 정규칠(丁奎七) 김재섭(金在燮) 신성균(申成均) 각상점연합주최와 본보 이천지국 후원으로 상계의 활기를 더하게 하며 시민의 흥미를 도웁기 위하야 세모경품 부대매출을 지난 十二일부터 오는 二월十三일까지 一개월동안 개최하기로 되엇다 한다.

景品券 買物一圓以上購買者

抽籤場所 利川普通[illegible]

一等	二人	(農牛)
二等	二人	(花柳二層籠)
三等	三人	(廣木)
四等	十五人	(特製[illegible])
五等	三十人	(메리야쓰)
六等	百人	(바겟스)
七等	三百人	(다오루)
八等	一萬一千四十七人	(鉛筆)

詐欺犯送局

六千五百圓

十六日朝仁川警察이

【인천】 인천부 중정(仲町) 송촌대서소(松村代書所) 사무원 전기양(全基陽(…))은 토지 계약서(土地契約書)를 위조하야 부내 산수정(山手町) 암정병원(岩井病院) 원장 암정좌삼랑(岩井佐三郎)씨를 사기하야 六천五백원을 편취한 사실은 기보한바와 같거니와 소관 인천서(仁川署)에서는 엄밀한 조사를 끝내고 작十六일조에 서류와같이 송국하엿다 한다.

利、長自動車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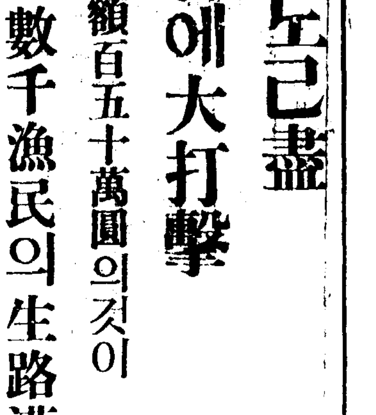
不遠間開通

【죽산】 안성군 죽산 시장(安城郡竹山市場)은 미곡 집산지로 도내 유명한 시장으로서 각방면의 교통이 자못 편리한 터이나 이천 죽산간은 교통이 불편하야 죽산시장 발전상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든바 一、二죽(竹)양면의 노력과 이장자동차 주식회사(利長自動車株式會社) 경남철도주식회사(京南鐵道株式會社)의 협동으로 도로의 대부분이 완성되엇으므로 이장자동차 주식회사에서는 주시에 제출하고 이래 허가 되기를 고대하든바 지난十一월二十八일로 허가되엇으므로 동 자동차회사에서는 불일간 개통코저 만반준비를 진행중이라고 한다.

青山面所新築運動

【포천】 포천군 청산면(抱川郡青山面)에서는 종내의 면사무소가 협착하여서 불편한점이 많다 하야 지난十二일에 구장 진소회장 가타 유지 六十여명이 초성리(草城里) 청산양소장에 회합하야 면사무소 신축을 결의하고 즉시 면사무소 신축기성회(新築期成會)를 조직하엿다는데 당일 선정된 임원은 아래와같다.

▲會長 申[illegible]
▲副會長 李[illegible]
▲理事 魚九元 徐[illegible] 李炳直
▲評議員 [illegible]外十七人



零下三十二度의極寒

얼음깨고冷水浴

江界申君의이야기

【강계】 영하 三十二도의 극한에도 얼음을 깨고 물속에 들어가 헤엄을 치는 용자가 강계(江界)에 잇다. 이는 강계읍 서부동(西部洞)[illegible]구리도상점 주인 신정호(申[illegible])씨다.

본래 신씨는 그리 약한몸은 아니엇으나 튼튼한 몸은 아니엇다 한다. 그리하야 겨울이면 감기도 자조 걸리고 몸이 매우 허약하여 저 가게된에 지금으로부터 五년전 겨울부터 냉수마찰을 하기시작하야 처음에는 방안에서 얼마 계속하다가 그뒤에는 강으로나가 찬물로 마찰만 하엿으나 몇해전부터는 아모리 치운겨울 아침이라도 굳게얼은 얼음을 깨고 물속에 들어가게까지 되엇다 한다.

신씨는 이일을 시작한지 五년 동안에 감기는 한번도 걸려본일이 없고 몸이 매우 튼튼하여 젓다 한다. (사진은 지난九일아침 여덟시 영하 三十二도 五부의 매도 치운날 강계에서 냉수욕하는 신씨)

體育團體巡禮記

今日休載

赤道 (23)

玄憑虛作 李青田畫

명화 二

처음 만나는 기어이 새로워지며, 한 몇에 드는 그 자는 모양이 몇 곱절 더 아름다웟다.

귀까지 휘싸서 너풀너풀 뒤로 넘긴 그 동그한 머리쪽, 찌은 업마다 풍정이 잇는가. 동그스럼한 빼의 곡선은 얼마나 연연한가. 그 곡선은 양양이 빼우에 와서 남부하게 일어나 보조개를 지은 언제보아도 장밋하엿다. 염꽃 봉오리 같은 입, 하얏이 열린 입은 생의생긴 웃는듯……

한창한 어린잎이 들여다 보다가, 눈으로만 보기에는 너무도 아깝다는 듯이, 사내는 개심의 갈으로 나가 앉으며, 손으로 만지기 시작하엿다. 손바닥에 보드보드한 촉감을 얻어가는 삶과는 거짓 같이, 녹아 버릴듯 하엿다. 아모러한 더지잣 같은 때를 고험고, 허물 스치고, 젖가슴을 더듬엇다. 상당이의 풍만 가운데 사내의 손길은 나비와 같이 허매며 번득거리며 지처거리며 나라갓엇다.

사내의 손길이 계집의 파묵에 옵때 가 막이엇다. 살 아닌 헌겁 같은 것이 손길에 부딪다. 아모리 만져 보아도 맨살은 아니다. 사내는 고개를 번쩍 들어 들여다 보니, 희미한 달빛에도 거기는 명주헌겁으로 휘휘 감아둔것을 발견하엿다. 그헌겁이 감긴 아래의 살은 상나웟이 부른뜻 하다. 처음에는 희미한 매여둔 것이어니, 가볍게 생각해 버리라 하엿스나, 명주 오래기로 감아둔것이 조금 이상스러웟다. 몇번 만져 만져 해보앗건만 감긴오래기는 봉대가 분명 아니다. 어쩌지 호기심이 욱식여 끌러 보랴도 아니못한 생각이 낫다. 약간 다. 그러나 아모리 손가락을 휘저어 보아도 매인 고를 찾을수가 없엇다. [illegible] 다. 희미하게 조은듯하든 방안은 쉬기를 따웃이 부시게 밝아젓다. 자세히 보니 매것이 아니오 가는실로 정성스럽게 감처 놓은 [illegible] 것이엇다. 호기심은 부쩍 낫다. [illegible] 고 가만가만이 [illegible] 감처 둔 헌겁이 그러게 [illegible] 이 떠어진리 없엇다. 사내는 조금이 낫다. 손가락을 감천 어에 집어넣어 잡아 채첫다. 실밥은 쉬사리 터젓으되 그 서슬에 명화가 잠을 깨고 말앗다. 명화는 그 자리를 흩거 쥐고 깜작놀래며 일어 앉엇다.

「안 주무시고 무얼 하서요」 하면서 뻡 깨인 눈을 부빈다.

「파묵에 감아둔게 뭐야?」

명화도 마소 일어 앉으며 맷자 갓사로 붙엇다.

「뭐 마시애요」

명화는 팔뚝을 움겨 뒤재로 뒤집어 웃는다.

「파묵에 명주실 감아둔건」

「파묵에 감아 둔것?」하고 생각을 돌리는듯 하드니 「응, 그것 말씀이에요」한다.

「그게 뭐람?」

「저, 그거, 저 그거」대답하기 난처해 하며 상긋이 웃어보인다. 이 웃음으로 변하는데 얼굴빛을 할망망하하라는듯 하엿다.

「저、그것이 뭐람?」

「몰라, 몰라요!」어리광 피듯 한마디하고, 명화는 자리속깊이 을 도로 쓰러 입고 그대로 누으며 이불을 푹 뒤집어 쓴다.

「그게 뭐야? 응, 그게」하고, 방울은 대여 물엇다.

「몰라, 몰라요!」또한마디 쏘고 명화는 몸을 웅숭그리며 뭄이 든다.

「모르는게 뭐야 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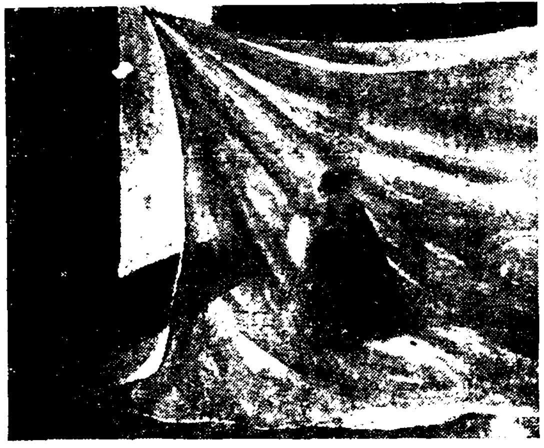
사내는 더욱 대들며 이불 자락을 벗기라고 애를 썻다.

「아이, 왜 이러서요, 남 끄러 죽겟는데」

계집은 더욱 몸을 웅숭거리며 짜증을 냇다.

「뭐나, 예, 응, 좀 보자 응」

사내는 더욱 몸이 달앗다.



性衰弱男子도强精케되는
蝮蛇酒야말로
참으로! 百藥의長
貧血、冷症、産前産後의……
婦人에奇妙히좋다
술를 먹어도조흔 婦人의例
醫學博士 鈴木勤吉氏談
東京府西多摩郡大久野小學校訓導 栗崎芳弘先生의夫人しげ子樣은 一昨年産後[illegible]
自然 [illegible]
實驗報告
醫學博士 物部 馨
蝮蛇酒에起死回生하는
仙人갓치不老長生
天下一品의特長
青春이再來하는
全部無料送呈
何人이든지東京市[illegible]
(昭和七年八月二十五日)
東京日日新聞記者
本年八月十七日

信州鹽澤家三百年家傳秘法
日·米專賣特許—各博覽會金牌受領
赤蝮蛇酒
高山藥草七種合劑
養命酒
醫學博士(七十餘氏)實驗御推奬
◇全國到處藥店百貨店에有함
發賣元 養命酒本舖出張所
東京[illegible]

새로 발표된 실내보온법

벽과천정에전기를통하야 방을따뜻하게한다는

우리들의 생활상에 중요시되는 [illegible] 온돌이나 만치 따뜻하기는 하지만 [illegible] 바닥은 뜨겁지만 위에서 감기가 들기 쉽읍니다. 더욱 어린아이들에게도 폐렴같은 호흡기병이 많이 생깁니다. 그런데 요사이 다음과 같은 자미있는 실내보온법(室內保溫法)이 제창되었읍니다.

[illegible]

× ×

이것은 실제생활에 응용하기 위하야 벽과천정에 전기를 통하게하야 따뜻하게하는 실험이 행하여졌다고 [illegible]

깜둥이

南 唯 一

새까만깜둥이에 [illegible] 귀여웁지요
[illegible]

洋料理俱樂部 講習會開催

每週水曜日에

[illegible]

家庭顧問

거짓말하고 밤새우는아우를 다시 착실하게 하자면?

(문) [illegible]

(답) [illegible]

博士室

問 [illegible]

答 [illegible]

問 [illegible]

答 [illegible]

부인문단

貞操에對한防備

最後의 線은 개지가사

金 慈 惠

[illegible]

남성들의

[illegible]

정조를간직

[illegible]

정조관념

[illegible]

童劇硏究會主催

童謠童劇의 밤

二十一日밤 公會堂에서

[illegible]

미국의 兒童 遊園地의 一例

밤(夜)—컬럼버스의 一生

(9)

엘 비 作

洪 昌 範 譯

[illegible]

佳作童話

눈 오 는 날

(三)

[illegible] 作

「바로 어제 하학후에 집에 도라온 준식이는 참아 차마 한수 없는 말을 이지로 「이미니 : 저 —」 하고는 거진 울다시피 말끝을 마치지 못할때

「예, 또 월사금 가시오시 못하면 오시 말라더냐? 아이고 또 이 때게 돈 六十전을 마련하단말이냐?」

어머니가 미지 말슴하시니까

「그럼요 : 별서 월사 금 바치라고 내일 낮까지 가져오라고 선생님이 그 러신니다」

하고 간신히 대답하던 한마디에 어머니는 우선 걱정기 「글쎄 이 어찌한단 말이냐? 아버지가 은 일이나 없나 버어가 지고 드러오실레는지

[illegible]

紙上病院

가슴이아퍼

[문] [illegible]

[답] [illegible]

담기침
喘息
百日咳

[illegible]

龍角散

— 龍角散의 適應容態書 —

/ 담으로 늘 괴롭하는 사람
/ 천식으로 그르렁거리고 숨찬 사람
/ 기침이 자저서 밤에 잠못자는 사람
/ 流行感氣로 해서 담기침하는 사람
/ 肺病으로 늘 바른 기침하는 사람
/ 담에 惡臭나며 往往피쉬이는 사람
/ 목이 쉬고 또는 咽喉아픈 사람
/ 百日기침하는 小兒

家庭의 診斷

△全國藥店에잇음▽

本舗 東京市神田區 [illegible]

株式會社 藤井得三郎商店